

제 1 교시

국어 영역

[16~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한국, 중국 등 동아시아 사회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과거제는 세습적 권리와 무관하게 능력주의적인 시험을 통해 관료를 선발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합리성을 갖추고 있었다. 정부의 관직을 ① 두고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공개 시험인 과거제가 도입되어,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신분이나 추천보다 시험 성적이 더욱 중요해졌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관료 선발 제도라는 공정성을 바탕으로 과거제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적 지위 획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개방성을 제고하여 사회적 유동성 역시 증대시켰다. 응시 자격에 일부 제한이 있었다 하더라도, 비교적 공정한 제도였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시험 과정에서 ② 익명성의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도입한 것도 공정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보여 준다.

과거제는 여러 가지 사회적 효과를 가져왔는데, 특히 학습에 강력한 동기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확대와 지식의 보급에 크게 기여했다. 그 결과 통치에 참여할 능력을 갖춘 지식인 집단이 폭넓게 형성되었다. 시험에 필요한 고전과 유교 경전이 주가 되는 학습의 내용은 도덕적인 가치 기준에 대한 광범위한 공유를 이끌어 냈다. 또한 최종 단계까지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국가가 여러 특권을 부여하고 그들이 지방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여 경쟁적 선발 제도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하고자 노력했다.

동아시아에서 과거제가 천 년이 넘게 시행된 것은 과거제의 합리성이 사회적 안정에 기여했음을 보여 준다. 과거제는 왕조의 교체와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동질적인 엘리트층의 연속성을 가져왔다. 그리고 이러한 연속성은 관료 선발 과정뿐 아니라 관료제에 기초한 통치의 안정성에도 기여했다.

과거제를 장기간 유지한 것은 세계적으로 드문 현상이었다. 과거제에 대한 정보는 선교사들을 통해 유럽에 전해져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일군의 유럽 계몽사상가들은 학자의 지식이 귀족의 세습적 지위보다 우위에 있는 체제를 정치적인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관심은 사상적 동향뿐 아니라 실질적인 사회 제도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관료 선발에 시험을 통한 경쟁이 도입되기도 했다.

(나)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관료 선발 제도 개혁론인 유형원의 공거제 구상은 능력주의적, 결과주의적 인재 선발의 약점을 극복하려는 의도와 함께 신분적 세습의 문제점도 의식한 것이었다. 중국에서는 17세기 무렵 관료 선발에서 세습과 같은 봉건적인 요소를 부분적으로 재도입하려는 개혁론이 등장했다. 고염무는 관료제의 상층에는 능력주의적 제도를 유지하되, ③ 지방관인 지원들은 어느 정도의 겸종 기간을 거친 이후 그 지위를 평생 유지시켜

주고 세습의 길까지 열어 놓는 방안을 제안했다. 황종희는 지방의 관료가 자체적으로 관리를 초빙해서 시험한 후에 추천하는 '벽소'와 같은 옛 제도를 ④ 되살리는 방법으로 과거제를 보완하자고 주장했다.

이러한 개혁론은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이 아니었다. 과거제를 시행했던 국가들에서는 수백 년에 ⑤ 걸쳐 과거제를 개선하라는 압력이 있었다. 시험 방식이 가져오는 부작용들은 과거제의 중요한 문제였다. 치열한 경쟁은 학문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이 아니라 학습만을 목적으로 하는 형식적 학습을 하게 만들었고, 많은 인재들이 수험 생활에 장기간 ⑥ 매달리면서 재능을 낭비하는 현상도 놓았다. 또한 학습 능력 이외의 인성이나 실무 능력을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시험의 ⑦ 익명성에 대한 회의도 있었다.

과거제의 부작용에 대한 인식은 과거제를 통해 임용된 관리들의 활동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 연결되었다. 능력주의적 태도는 시험뿐 아니라 관리의 업무에 대한 평가에도 적용되었다. 세습적이지 않으면서 몇 년의 임기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관리들은 승진을 위해서 빨리 성과를 낼 필요가 있었기에, 지역 사회를 위해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기보다 가시적이고 단기적인 결과만을 중시하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개인적 동기가 공공성과 상충되는 현상이 나타났던 것이다. 공동체 의식의 약화 역시 과거제의 부정적 결과로 인식되었다. 과거제 출신의 관리들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낮고 출세 지향적이기 때문에 세습 엘리트나 지역에서 친거된 관리에 비해 공동체에 대한 충성심이 약했던 것이다.

과거제가 지속되는 시기 내내 과거제 이전에 대한 향수가 존재했던 것은 그 외의 정치 체제를 상상하기 ⑧ 어려웠던 상황에서, 사적이고 정서적인 관계에서 볼 수 있는 소속감과 충성심을 과거제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봉건적 요소를 도입하여 과거제를 보완하자는 주장은 단순히 복고적인 것이 아니었다. 합리적인 제도가 가져온 역설적 상황을 역사적 경험과 주어진 사상적 자원을 활용하여 보완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16. (가)와 (나)의 서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 모두 특정 제도가 사회에 미친 영향을 인과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② (가)와 (나) 모두 특정 제도를 분석하는 두 가지 이론을 구분하여 소개하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구체적 사상가들의 견해를 언급하며 특정 제도에 대한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특정 제도에 대한 선호와 비판의 근거들을 비교하면서 특정 제도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 ⑤ (가)는 특정 제도의 발전을 통시적으로, (나)는 특정 제도에 대한 학자들의 상반된 입장을 공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17. (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시험을 통한 관료 선발 제도는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실시되었다.
- ② 과거제는 폭넓은 지식인 집단을 형성하여 관료제에 기초한 통치에 기여했다.
- ③ 과거 시험의 최종 단계까지 통과하지 못한 사람도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 ④ 경쟁을 바탕으로 한 과거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지방의 관료에 의해 초빙될 기회를 주었다.
- ⑤ 귀족의 지위보다 학자의 지식이 우위에 있는 체제가 합리적이라고 여긴 계몽사상가들이 있었다.

18. (나)를 참고할 때, ①과 같은 제안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거제로 등용된 관리들이 근무지를 자주 바꾸게 되어 근무지에 대한 소속감이 약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 ② 과거제로 등용된 관리들의 봉건적 요소에 대한 지향이 공공성과 상충되는 세태로 나타났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 ③ 과거제로 선발한 관료들은 세습 엘리트에 비해 개인적 동기가 강해서 공동체 의식이 높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 ④ 과거제를 통해 배출된 관료들이 출세 지향적이어서 장기적 안목보다는 근시안적인 결과에 치중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 ⑤ 과거제가 낳은 능력주의적 태도로 인해 관리들이 승진을 위해 가시적인 성과만을 내려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19. (가)와 (나)를 참고하여 ⑦과 ⑨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⑦은 모든 사람에게 응시 기회를 보장했지만, ⑨은 결과주의의 지나친 확산에서 비롯되었다.
- ② ⑦은 정치적 변화에도 사회적 안정을 보장했지만, ⑨은 대대로 관직을 물려받는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 ③ ⑦은 지역 공동체의 전체 이익을 중진시켰지만, ⑨은 지나친 경쟁이 유발한 국가 전체의 비효율성에서 비롯되었다.
- ④ ⑦은 사회적 지위 획득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했지만, ⑨은 관리 선발 시 됨됨이 겸증의 곤란함에서 비롯되었다.
- ⑤ ⑦은 관료들이 지닌 도덕적 가치 기준의 다양성을 확대했지만, ⑨은 사적이고 정서적인 관계 확보의 어려움에서 비롯되었다.

20. <보기>는 과거제에 대한 조선 시대 선비들의 견해를 재구성한 것이다. (가)와 (나)를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 **갑**: 변변치 못한 집안 출신이라 차별받는 것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과거를 통해 관직을 얻으면서 불만이 많이 해소되어 사회적 갈등이 완화된 것은 바람직하다.
- **을**: 과거제를 통해 조선 사회에 유교적 가치가 광범위하게 자리를 잡아 좋다. 그런데 많은 선비들이 오랜 시간 과거를 준비하느라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펼치지 못한다는 점이 안타깝다.
- **병**: 요즘 과거 시험 준비를 위해 나오는 책들을 보면 시험에 자주 나왔던 내용만 정리되어 있어서 학습의 깊이가 없으니 문제이다. 그래도 과거제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 ① ‘갑’이 과거제로 인해 사회적 유동성이 증가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본 것은, 능력주의에 따른 공정성과 개방성이라는 시험의 성격에 주목한 것이겠군.
- ② ‘을’이 과거제로 인해 많은 선비들이 재능을 낭비한다는 점을 부정적으로 본 것은, 치열한 경쟁을 유발하는 시험의 성격에 주목한 것이겠군.
- ③ ‘을’이 과거제로 인해 사회의 도덕적 가치 기준에 대한 광범위한 공유가 가능해졌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본 것은, 고전과 유교 경전 위주의 시험 내용에 주목한 것이겠군.
- ④ ‘병’이 과거제로 인해 심화된 공부를 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정적으로 본 것은, 형식적인 학습을 유발한 시험 방식에 주목한 것이겠군.
- ⑤ ‘병’이 과거제로 인해 교육에 대한 동기가 강화되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본 것은, 실무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시험 방식에 주목한 것이겠군.

21. 문맥상 ⑧~⑩의 단어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⑧: 그가 열쇠를 방 안에 두고 문을 잠가 버렸다.
- ② ⑨: 우리는 그 당시의 행복했던 기억을 되살렸다.
- ③ ⑩: 협곡 사이에 구름다리가 멋지게 걸쳐 있었다.
- ④ ⑪: 사소한 일에만 매달리면 중요한 것을 놓친다.
- ⑤ ⑫: 형편이 어려울수록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국어 영역

3

문제풀이 - 1문단

(가)

한국, 중국 등 동아시아 사회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과거제는 세습적 권리와 무관하게 능력주의적인 시험을 통해 관료를 선발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합리성을 갖추고 있었다. 정부의 관직을 ① 두고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공개 시험인 과거제가 도입되어,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신분이나 추천보다 시험 성적이 더욱 중요해졌다.

모든 문제들을 검토해보자.

16. (가)와 (나)의 서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 모두 특정 제도가 사회에 미친 영향을 인과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② (가)와 (나) 모두 특정 제도를 분석하는 두 가지 이론을 구분하여 소개하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구체적 사상가들의 견해를 언급하며 특정 제도에 대한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특정 제도에 대한 선호와 비판의 근거들을 비교하면서 특정 제도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 ⑤ (가)는 특정 제도의 발전을 통시적으로, (나)는 특정 제도에 대한 학자들의 상반된 입장을 공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가) 또는 (나) 둘 중 하나라도 다 읽은 후에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 아직 보지 않음.

17. (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시험을 통한 관료 선발 제도는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실시되었다.
- ② 과거제는 폭넓은 지식인 집단을 형성하여 관료제에 기초한 통치에 기여했다.
- ③ 과거 시험의 최종 단계까지 통과하지 못한 사람도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 ④ 경쟁을 바탕으로 한 과거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지방의 관료에 의해 초빙될 기회를 주었다.
- ⑤ 귀족의 지위보다 학자의 지식이 우위에 있는 체제가 합리적이라고 여긴 계몽사상가들이 있었다.

내용 일치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은 매 문단마다 읽은 후 판단해주는 것이 좋다. 특히 1문단은 (가)에 속하는 부분이므로 한번 판단해 주어야 한다. (현재는 1번 선지의 절반 정도가 맞았다는 것만 판단가능)

또한 선지 내용을 통해 앞으로 어떤 내용 또는 단어를 중점적으로 체크해야 할지 알 수 있다. (3번 선지의 내용이 옳은지? 5번 선지의 내용도 옳은지? 2번 선지를 통해서는 과거제와 지식인, 관료제의 관계에 대해서도 체크해봐야겠구나 생각 가능)

SpokesAI

18. (나)를 참고할 때, ②와 같은 제안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거제로 등용된 관리들이 근무자를 자주 바꾸게 되어 근무지에 대한 소속감이 약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 ② 과거제로 등용된 관리들의 봉건적 요소에 대한 지향이 공공성과 상충되는 세태로 나타났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 ③ 과거제로 선발한 관료들은 세습 엘리트에 비해 개인적 동기가 강해서 공동체 의식이 높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 ④ 과거제를 통해 배출된 관료들이 출세 지향적이어서 장기적 안목보다는 근시안적인 결과에 치중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 ⑤ 과거제가 높은 능력주의적 태도로 인해 관리들이 승진을 위해 가시적인 성과만을 내려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나)를 참고하라 했으므로 (나)를 읽는 시점에 살펴봐야 한다. 또한 ②가 (나)의 첫 번째 문단에 등장하므로, (나)의 첫 번째 문단을 읽은 후부터 바로 살펴봐야 할 듯 하다.

19. (가)와 (나)를 참고하여 ㉠과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모든 사람에게 응시 기회를 보장했지만, ㉡은 결과주의의 지나친 확산에서 비롯되었다.
- ② ㉠은 정치적 변화에도 사회적 안정을 보장했지만, ㉡은 대대로 관직을 물려받는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 ③ ㉠은 지역 공동체의 전체 이익을 증진시켰지만, ㉡은 지나친 경쟁이 유발한 국가 전체의 비효율성에서 비롯되었다.
- ④ ㉠은 사회적 지위 획득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했지만, ㉡은 관리 선발 시 됨됨이 검증의 곤란함에서 비롯되었다.
- ⑤ ㉠은 관료들이 지닌 도덕적 가치 기준의 다양성을 확대했지만, ㉡은 사적이고 정서적인 관계 확보의 어려움에서 비롯되었다.

글 전부를 참고하라고 하니 내용 일치 문제와 비슷한 유형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과 ㉡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과 ㉡이 등장하는 문단을 읽은 후부터 살펴보면 될 것이다.

20. <보기>는 과거제에 대한 조선 시대 선비들의 견해를 재구성한 것이다. (가)와 (나)를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 **갑**: 변변치 못한 집안 출신이라 차별받는 것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과거를 통해 관직을 얻으면서 불만이 많이 해소되어 사회적 갈등이 완화된 것은 바람직하다.
- **을**: 과거제를 통해 조선 사회에 유교적 가치가 광범위하게 자리를 잡아 좋다. 그런데 많은 선비들이 오랜 시간 과거를 준비하느라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펼치지 못한다는 점이 안타깝다.
- **병**: 요즘 과거 시험 준비를 위해 나오는 책들을 보면 시험에 자주 나왔던 내용만 정리되어 있어서 학습의 깊이가 없으니 문제이다. 그래도 과거제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 ① ‘갑’이 과거제로 인해 사회적 유동성이 증가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본 것은, 능력주의에 따른 공정성과 개방성이라는 시험의 성격에 주목한 것이겠군.
- ② ‘을’이 과거제로 인해 많은 선비들이 재능을 낭비한다는 점을 부정적으로 본 것은, 치열한 경쟁을 유발하는 시험의 성격에 주목한 것이겠군.
- ③ ‘을’이 과거제로 인해 사회의 도덕적 가치 기준에 대한 광범위한 공유가 가능해졌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본 것은, 고전과 유교 경전 위주의 시험 내용에 주목한 것이겠군.
- ④ ‘병’이 과거제로 인해 심화된 공부를 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정적으로 본 것은, 형식적인 학습을 유발한 시험 방식에 주목한 것이겠군.
- ⑤ ‘병’이 과거제로 인해 교육에 대한 동기가 강화되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본 것은, 실무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시험 방식에 주목한 것이겠군.

(가)와 (나), 즉 글 전체를 읽고 <보기>에 대해 판단하는 문제이므로, 글 전체를 다 읽고 이 문제를 풀어야 할 듯 하다. <보기> 문제는 참고범위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글 전체를 다 읽은 후에 풀 것인데, 그 이유는 풀이 방식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21. 문맥상 ①~⑤의 단어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①: 그가 열쇠를 방 안에 두고 문을 잠가 버렸다. ×
- ② ②: 우리는 그 당시의 행복했던 기억을 되살렸다.
- ③ ③: 협곡 사이에 구름다리가 멋지게 걸쳐 있었다.
- ④ ④: 사소한 일에만 매달리면 중요한 것을 놓친다.
- ⑤ ⑤: 형편이 어려울수록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

1번 선지가 답이 아니라는 것을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다.(1번 선지의 ‘두고’는 물리적인 의미, ①은 ‘걸고’와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함-ex. 상품을 걸고 게임을 하다.)

2문단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관료 선발 제도라는 공정성을 바탕으로 과거제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적 지위 획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개방성을 제고하여 사회적 유동성 역시 증대 시켰다. 응시 자격에 일부 제한이 있었다 하더라도, 비교적 공정한 제도였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시험 과정에서 ⑦의 명성의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도입한 것도 공정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보여 준다.

17번은 보아야 하고, ⑦이 나왔으므로 19번도 보기 시작해야 한다.

SpokesAI

17. (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시험을 통한 관료 선발 제도는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실시되었다.
- ② 과거제는 폭넓은 지식인 집단을 형성하여 관료제에 기초한 통치에 기여했다.
- ③ 과거 시험의 최종 단계까지 통과하지 못한 사람도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 ④ 경쟁을 바탕으로 한 과거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지방의 관료에 의해 초빙될 기회를 주었다.
- ⑤ 귀족의 지위보다 학자의 지식이 우위에 있는 체제가 합리적이라고 여긴 계몽사상가들이 있었다.

2문단의 내용을 통해 판단할 수 있는 선지가 없었다.

19. (가)와 (나)를 참고하여 ㉠과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모든 사람에게 응시 기회를 보장했지만, ㉡은 결과주의의 지나친 확산에서 비롯되었다. ×
- ② ㉠은 정치적 변화에도 사회적 안정을 보장했지만, ㉡은 대대로 관직을 물려받는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 ③ ㉠은 지역 공동체의 전체 이익을 증진시켰지만, ㉡은 지나친 경쟁이 유발한 국가 전체의 비효율성에서 비롯되었다.
- ④ ㉠은 사회적 지위 획득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했지만, ㉡은 관리 선발 시 됨됨이 검증의 곤란함에서 비롯되었다.
- ⑤ ㉠은 관료들이 지닌 도덕적 가치 기준의 다양성을 확대했지만, ㉡은 사적이고 정서적인 관계 확보의 어려움에서 비롯되었다.

‘응시 자격에 일부 제한’이 있었다고 2문단에 언급되었으므로 1번 선지는 틀린 선지가 된다. ㉠은 ‘익명성’과 관련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 포함된 문장을 보면 결론적으로 ‘공정성’과 관련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4번 선지의 ㉠에 대한 설명은 ‘공정성을 바탕으로 과거제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적 지위 획득의 기회를 줌~’이라고 2문단에서 언급되었으므로 옳다고 표시해두고 넘어갈 수 있다.

SpokesAI

3문단

과거제는 여러 가지 사회적 효과를 가져왔는데, 특히 학습에 강력한 동기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확대화·지식의 보급에 크게 기여했다. 그 결과 통치에 참여할 능력을 갖춘 지식인 집단이 폭넓게 형성되었다. 시험에 필요한 고전과 유교 경전이 주가 되는 학습의 내용은 도덕적인 가치 기준에 대한 광범위한 공유를 이끌어 냈다. 또한 최종 단계까지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국가가 여러 특권을 부여하고 그들이 지방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여 경쟁적 선발 제도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하고자 노력했다.

17. (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시험을 통한 관료 선발 제도는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실시되었다. ○
- ② 과거제는 폭넓은 지식인 집단을 형성하여 관료제에 기초한 통치에 기여했다. △(○)
- ③ 과거 시험의 최종 단계까지 통과하지 못한 사람도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
- ④ 경쟁을 바탕으로 한 과거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지방의 관료에 의해 초빙될 기회를 주었다. △(×)
- ⑤ 귀족의 지위보다 학자의 지식이 우위에 있는 체제가 합리적이라고 여긴 계몽사상가들이 있었다.

2번 선지의 지식인 집단 형성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었으므로 맞음. 다만 관료제에 기초한 통치에 기여했는지에 대해 명시되어야 확실한 판단이 될 것인데, 과거제가 관료를 뽑는 것으로 나머지 내용도 옳지 않을까 생각하여 세모 표시를 하고 넘어갔음.

3번 선지는 분명히 언급되었으므로 ('또한 최종 단계까지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옳은 선지.

4번의 경쟁을 바탕으로 한 과거제라는 표현이 마지막 문장에 언급되었으므로 부분적으로 맞지만, 사람들이 지방의 관료에 '의해' 초빙될 기회를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 나머지 내용들을 더 읽어야 확실히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지방의 관료 '로' 초빙될 기회를 주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내용('지방 사회에 기여~')에 대응하므로 아마도 틀린 선지, 즉 이 문제의 답이 아닐까 생각하고 세모 표시를 하고 넘어감.

그렇다면 5번 선지가 맞다는 근거를 찾고, 1, 2번 선지의 나머지 내용이 맞다는 확실한 단서가 나온다면 4번 선지를 답으로 택할 수 있음. 따라서 5번 선지의 내용과 1, 2번 선지의 나머지 내용에 집중하며 다음 문단을 읽어가면 될 듯.

19. (가)와 (나)를 참고하여 ㉠과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모든 사람에게 응시 기회를 보장했지만, ㉡은 결과주의의 지나친 확산에서 비롯되었다. ×
- ② ㉠은 정치적 변화에도 사회적 안정을 보장했지만, ㉡은 대대로 관직을 물려받는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 ③ ㉠은 지역 공동체의 전체 이익을 증진시켰지만, ㉡은 지나친 경쟁이 유발한 국가 전체의 비효율성에서 비롯되었다.
- ④ ㉠은 사회적 지위 획득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했지만, ㉡은 관리 선발 시 됨됨이 겸증의 곤란함에서 비롯되었다.
- ⑤ ㉠은 관료들이 지닌 도덕적 가치 기준의 다양성을 확대했지만, ㉡은 사적이고 정서적인 관계 확보의 어려움에서 비롯되었다.

3문단에 언급된 내용으로는 5번 선지의 '도덕적 가치 기준'을 들 수 있겠지만, 3문단에서는 그에 대한 '광범위한 공유'를 제시했지 '다양성'에 대해 제시한 것이 아니므로 판단할 수 없다. 또한 애초에 ㉠은 '의명성' 또는 '공정성'과 관련된 것이므로 3문단의 내용과 상관이 없다고도 볼 수 있다.

4문단

동아시아에서 과거제가 친 년이 넘게 시행된 것은 과거제의 합리성이 사회적 안정에 기여했음을 보여 준다. 과거제는 왕조의 교체와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동질적인 엘리트층의 연속성을 가져왔다. 그리고 이러한 연속성은 관료 선발 과정뿐 아니라 관료제에 기초한 통치의 안정성에도 기여했다.

4문단의 내용도 ‘익명성’ 혹은 ‘공정성’과 관련이 없으므로 19번을 판단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다. 우선 17번을 보자면

17. (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시험을 통한 관료 선발 제도는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실시되었다. ○
- ② 과거제는 폭넓은 지식인 집단을 형성하여 관료제에 기초한 통치에 기여했다. △(○)
- ③ 과거 시험의 최종 단계까지 통과하지 못한 사람도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
- ④ 경쟁을 바탕으로 한 과거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지방의 관료에 의해 초빙될 기회를 주었다. △(×)
- ⑤ 귀족의 지위보다 학자의 지식이 우위에 있는 체제가 합리적이라고 여긴 계몽사상가들이 있었다.

과거제가 관료제에 기초한 통치에 기여한 것이 맞고, 그 이유가 동질적인 엘리트층의 연속성 때문인데 지식인 집단의 형성과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선지라고 판단할 수 있다.(명확한 근거를 원한다면 여전히 세모 표시로 남겨두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 다만 앞서 3문단을 읽은 후 4번이 답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기야, 나머지 선지들은 확실하게 해당 선지가 옳지 않다는 근거가 없다면 옳다고 판단하고 넘어가는 것이 시험장에서의 멘탈에 도움이 되므로 살짝 편향된 풀이를 하고 있다.) 이제 5번 선지가 맞다는 근거와 1번 선지의 나머지 내용, 즉 유럽에서도 시험을 통해 관료를 선발 했는가에 대한 내용만 나와준다면 4번이 정답이라고 자신있게 체크해도 될 것이다. 만약 그렇게 내용이 나와주지 않는다면 4번을 제외하고 나머지 중 의문이 생기는 선지가 답이 될 가능성도 있다.

19. (가)와 (나)를 참고하여 ㉠과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모든 사람에게 응시 기회를 보장했지만, ㉡은 결과주의의 지나친 확산에서 비롯되었다. ×
- ② ㉠은 정치적 변화에도 사회적 안정을 보장했지만, ㉡은 대대로 관직을 물려받는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
- ③ ㉠은 지역 공동체의 전체 이익을 증진시켰지만, ㉡은 지나친 경쟁이 유발한 국가 전체의 비효율성에서 비롯되었다.
- ④ ㉠은 사회적 지위 획득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했지만, ㉡은 관리 선발 시 됨됨이 겸증의 곤란함에서 비롯되었다.
- ⑤ ㉠은 관료들이 지닌 도덕적 가치 기준의 다양성을 확대했지만, ㉡은 사적이고 정서적인 관계 확보의 어려움에서 비롯되었다.

2번의 ㉠에 관한 설명이 4문단에 언급되었다. 물론 ‘익명성’, ‘공정성’과는 관련이 없기에 엄밀히 따지면 판단하기 무리가 있는 부분이지만, 시험장에서의 멘탈 관리를 위해 ‘명시적으로 언급되었으므로’ 옳은 것 같다고 표시하고 넘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세모 표시를 해두도록 하겠다.)

국어 영역

5문단

과거제를 장기간 유지한 것은 세계적으로 드문 현상이었다. 과거제에 대한 정보는 선교사들을 통해 유럽에 전해져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일군의 유럽 계몽사상가들은 학자의 지식이 귀족의 세습적 지위보다 우위에 있는 체제를 정치적인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관심은 사상적 동향뿐 아니라 실질적인 사회 제도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관료 선발에 시험을 통한 경쟁이 도입되기도 했다.

(가)의 마지막 문단으로, 이제 17번의 답을 확실하게 찾아야 하는 시점이고, 16번과 19번 또한 선지를 체크해 봄아 할 것이다.

17. (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시험을 통한 관료 선발 제도는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실시되었다. ○
- ② 과거제는 폭넓은 지식인 집단을 형성하여 관료제에 기초한 통치에 기여했다. △(○)
- ③ 과거 시험의 최종 단계까지 통과하지 못한 사람도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
- ④ 경쟁을 바탕으로 한 과거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지방의 관료에 의해 초빙될 기회를 주었다. △(✗)
- ⑤ 귀족의 지위보다 학자의 지식이 우위에 있는 체제가 합리적이라고 여긴 계몽사상가들이 있었다. ○

우선 5번의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 5문단에서 언급되었으므로('일군의 유럽 계몽사상가들은 ~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 보았다.') 5번 선지는 확실하게 옳은 선지이고, 마지막 문장에서의 '이러한 관심'이라는 것은 과거제에 대한 유럽의 관심을 뜻하므로, 관료 선발에 시험을 통한 경쟁이 도입된 것도 유럽이기에 1번 선지 또한 옳은 선지이다. 4번 선지에서 '지방의 관료에 의해' 초빙된다는 것은 시험을 거치지 않는 세습적 성격이 강한 의미가 내포되어있기에 과거제에 대한 설명과는 반대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옳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따라서 17번의 답은 4번.

16. (가)와 (나)의 서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 모두 특정 제도가 사회에 미친 영향을 인과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 ② (가)와 (나) 모두 특정 제도를 분석하는 두 가지 이론을 구분하여 소개하고 있다. ×
- ③ (가)는 ((나)와 달리) 구체적 사상가들의 견해를 언급하며 특정 제도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
- ④ (나)는 ((가)와 달리) 특정 제도에 대한 선호와 비판의 근거들

을 비교하면서 특정 제도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⑤ (가)는 특정 제도의 발전을 동시적으로, (나)는 특정 제도에 대한 학자들의 상반된 입장을 공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

(가)에서 과거제가 사회에 미친 영향들을 여러 원인과 결과로 나누어서 설명했으므로 1번 선지의 (가)에 대한 설명은 옳다.

(가)에서 과거제를 분석하는 두 가지 이론이 구분되어 소개된 바는 없으므로 2번 선지는 틀린 선지이다.

3번 선지와 같이 '와 달리'가 포함된 내용의 선지를 읽을 때에는 '와 달리' 부분에 팔호를 쳐준 후, 팔호 부분을 빼고 읽어서 참 거짓을 판단한 후, 설명 부분이 팔호 내의 '(3번 선지에서는 (나)일 것이다.)에 해당하는 것의 특성과 반대되는지를 살펴보면 논리를 헛갈리지 않고 풀 수 있다. (가)에서 구체적 사상가의 견해가 나온 적이 없으므로 3번 선지는 틀린 선지이다.

(가)에서 과거제에 대한 선호 비판의 근거를 비교한 적이 없으므로 아직 4번 선지는 옳은 선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이다.

(가)에서 과거제의 발전을 동시적으로,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발전하는가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으므로 5번 선지는 틀린 선지이다.

*동시적, 공시적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는 수험생으로서 반드시 살펴보고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16번 문제는 1번 혹은 4번 중에 답이 있을 것이다.

19. (가)와 (나)를 참고하여 ㉠과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모든 사람에게 응시 기회를 보장했지만, ㉡은 결과주의의 지나친 확산에서 비롯되었다. ×
△(○)
- ② ㉠은 정치적 변화에도 사회적 안정을 보장했지만, ㉡은 대대로 관직을 물려받는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 ③ ㉠은 지역 공동체의 전체 이익을 증진시켰지만, ㉡은 지나친 경쟁이 유발한 국가 전체의 비효율성에서 비롯되었다.
- ④ ㉠은 사회적 지위 획득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했지만, ㉡은 관리 선발 시 됨됨이 겸증의 곤란함에서 비롯되었다.
- ⑤ ㉠은 관료들이 지닌 도덕적 가치 기준의 다양성을 확대했지만, ㉡은 사적이고 정서적인 관계 확보의 어려움에서 비롯되었다.

5문단을 읽고 추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 보인다. 3번 선지 ㉠부분의 '지역 공동체'와 관련된 내용은 (나)에서 나와주지 않을까 예상하고 넘어가면 된다.

6문단

(나)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관료 선발 제도 개혁론인 (유형원회 공거제) 구상은 능력주의적, 결과주의적 인재 선발의 약점을 극복하려는 의도와 함께 신분적 세습의 문제점도 의식한 것이었다. 중국에서는 17세기 무렵 관료 선발에서 세습과 같은 봉건적인 요소를 부분적으로 재도입하려는 개혁론이 등장했다. 고염무는 관료제의 상충에는 능력주의적 제도를 유지하되, 가지방관인 지현들은 어느 정도의 검증 기간을 거친 이후 그 지위를 평생 유지시켜 주고 세습의 길까지 열어 놓는 방안을 제안했다. (황종희)는 지방의 관료가 자체적으로 관리를 초빙해서 시험한 후에 추천하는 ‘벽소’와 같은 옛 제도를 ⑤ 되살리는 방법으로 과거제를 보완하고 주장했다.

6문단에서 드러난, 과거제 이전이라고 추정되는 ‘옛 제도’인 ‘벽소’에 대한 설명을 통해 17번의 4번 선지가 확실히 틀린 선지임을 알 수 있다. 지방의 관료가 관리를 초빙하는 형태는 과거제와 다르다는 것이 명시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읽은 부분이 (나)의 첫 문단이고, ④ 또한 나타났기 때문에 18번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 또한 ⑤가 나타났으므로 21번 문제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16번은 (나)를 다 읽은 후에 판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⑥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19번도 추후에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살펴보지 않는다.

6문단에 ‘세습’이 ‘봉건적인 요소’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세습’은 ‘과거제’의 성격과 반대되는 제도이다. 즉 ‘과거제’와 ‘봉건적 요소’는 반대의 성격을 띠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제로 등용된 관리들이 봉건적 요소를 지향한다는 말은 모순되는 설명이므로 18번의 답은 2번이 된다.

※수험생이라면 지향과 지양의 차이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바로 답이 도출된 경우에도 나머지 선지들이 확실히 옳은 선지인지 판단하는 과정은 국어 100점이 목표라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는 과정도 아니기에 다음 내용들을 읽어가면서 부분적으로 18번의 나머지 선지들이 옳다는 것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18. (나)를 참고할 때, ④와 같은 제안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거제로 등용된 관리들이 근무지를 자주 바꾸게 되어 근무지에 대한 소속감이 약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 ② 과거제로 등용된 관리들의 봉건적 요소에 대한 지향이 공공성과 상충되는 세태로 나타났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
- ③ 과거제로 선발한 관료들은 세습 엘리트에 비해 개인적 동기가 강해서 공동체 의식이 높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 ④ 과거제를 통해 배출된 관료들이 출세 지향적이어서 장기적 안목보다는 근시안적인 결과에 치중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 ⑤ 과거제가 낳은 능력주의적 태도로 인해 관리들이 승진을 위해 가시적인 성과만을 내려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21. 문맥상 ④~⑥의 단어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④: 그가 열쇠를 방 안에 두고 문을 잠가 버렸다. ×
- ② ⑤: 우리는 그 당시의 행복했던 기억을 되살렸다. ×
- ③ ⑥: 협곡 사이에 구름다리가 멋지게 걸쳐 있었다.
- ④ ⑦: 사소한 일에만 매달리면 중요한 것을 놓친다.
- ⑤ ⑧: 형편이 어려울수록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

2번 선지가 답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2번 선지의 ‘되살렸다’는 ‘(생각 등을)다시 떠올렸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⑥는 ‘(규칙 등을)부활시키다’ 등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7문단

이러한 개혁론은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이 아니었다. 과거제를 시행했던 국가들에서는 수백 년에 ⑤ 걸쳐 과거제를 개선하라는 압력이 있었다. 시험 방식이 가져오는 부작용들은 과거제의 중요한 문제였다. 치열한 경쟁은 학문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이 아니라 합격만을 목적으로 하는 형식적 학습을 하게 만들었고, 많은 인재들이 수험 생활에 장기간 ④ 매달리면서 재능을 낭비하는 현상도 놓았다. 또한 학습 능력 이외의 인성이나 실무 능력을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시험의 ⑥ 익명성에 대한 회의도 있었다.

⑤와 ④가 등장했으므로 21번의 답을 정할 수 있을 것이고, ⑥이 등장했으므로 19번을 살펴보기 시작해야 한다. ⑥은 ⑦에 대한 회의로써, 그 이유는 글에 나와있듯 ‘인성’, ‘실무 능력’과 같은 ‘학습 능력 이외의 것’을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7문단의 내용으로는 18번에서 판단할 수 있는 선지가 없으므로 19번, 21번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1. 문맥상 ①~⑤의 단어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①: 그가 열쇠를 방 안에 두고 문을 잠가 버렸다. ×
- ② ②: 우리는 그 당시의 행복했던 기억을 되살렸다. ×
- ③ ③: 협곡 사이에 구름다리가 멋지게 걸쳐 있었다. ×
- ④ ④: 사소한 일에만 매달리면 중요한 것을 놓친다. ○
- ⑤ ⑤: 형편이 어려울수록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

3번 선지는 틀리고, 4번 선지는 옳다는 것을 알 수 있다.(3번 선지의 ‘걸쳐’는 물리적인 의미, ⑤는 시간과 관련된 의미로 쓰였다.) 다만 4번 선지에 대해 헛갈리는 경우가 생긴다면, 세모 표시를 해놓고 5번 선지에 대해 판단하면 되므로 큰 문제는 아니다.

SpokesAI

19. (가)와 (나)를 참고하여 ⑦과 ⑧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⑦은 모든 사람에게 응시 기회를 보장했지만, ⑧은 결과주의의 지나친 확산에서 비롯되었다. ×
- ② ⑦은 정치적 변화에도 사회적 안정을 보장했지만, ⑧은 대대로 관직을 물려받는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
- ③ ⑦은 지역 공동체의 전체 이익을 증진시켰지만, ⑧은 지나친 경쟁이 유발한 국가 전체의 비효율성에서 비롯되었다. ×
- ④ ⑦은 사회적 지위 획득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했지만, ⑧은 관리 선발 시 됨됨이 겸증의 곤란함에서 비롯되었다. ○
- ⑤ ⑦은 관료들이 지닌 도덕적 가치 기준의 다양성을 확대했지만, ⑧은 사적이고 정서적인 관계 확보의 어려움에서 비롯되었다. ×

앞서 밝힌 대로 ⑧은 ‘인성’, ‘실무 능력’과 같은 ‘학습 능력 이외의 것’을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1, 2, 3, 5번 선지의 내용들은 ⑧의 이유와 관련없는 내용들이 언급되었으므로 틀린 선지이고, 4번 선지가 옳은 선지이다.

8문단

과거제의 부작용에 대한 인식은 과거제를 통해 임용된 관리들의 활동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 연결되었다. 능력주의적 태도는 시험뿐 아니라 관리의 업무에 대한 평가에도 적용되었다. 세습적 이지 않으면서 몇 년의 임기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관리들은 승진을 위해서 빨리 성과를 낼 필요가 있었기에, 지역 사회를 위해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기보다 가시적이고 단기적인 결과만을 중시하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개인적 동기가 공공성과 상충되는 현상이 나타났던 것이다. 공동체 의식의 약화 역시 과거제의 부정적 결과로 인식되었다. 과거제 출신의 관리들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낮고 출세 지향적이기 때문에 세습 엘리트나 지역에서 천거된 관리에 비해 공동체에 대한 충성심이 약했던 것이다.

18번의 선지 내용과 관련된 정보들이 주로 나온 문단이다.
따라서 (이미 답을 정했지만) 18번 문제를 다시 살펴보면

18. (나)를 참고할 때, ①과 같은 제안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거제로 등용된 관리들이 근무지를 자주 바꾸게 되어 근무지에 대한 소속감이 약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
- ② 과거제로 등용된 관리들의 봉건적 요소에 대한 지향이 공공성과 상충되는 세태로 나타났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
- ③ 과거제로 선별한 관료들은 세습 엘리트에 비해 개인적 동기가 강해서 공동체 의식이 높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
- ④ 과거제를 통해 배출된 관료들이 출세 지향적이어서 장기적 안목보다는 근시안적인 결과에 치중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
- ⑤ 과거제가 낳은 능력주의적 태도로 인해 관리들이 승진을 위해 가시적인 성과만을 내려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

능력주의적 태도가 업무평가에 활용되고(5번 선지), 과거제로 등용된 관리들이 근무지를 자주 바꾸고(1번 선지), 가시적이고 단기적인 성과만을 중시하고(4, 5번 선지), 개인적 동기가 공공성과 상충되고(2, 3번 선지), 공동체 의식이 낮고(3번 선지), 또한 그로 인해 소속감이 낮고(1번 선지), 출세 지향적이고(4번 선지), 세습 엘리트들에 비해 공동체에 대한 충성심이 낮다(3번 선지)는 사실이 전부 이 문단에서 드러났다. 다만 과거제로 등용된 관리들이 봉건적 요소를 지향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가 없기에 앞선 풀이가 여전히 유효하고, 나머지 선지들이 전무 옳은 선지 이기에 답은 확실히 2번이 될 것이다.

9문단

과거제가 지속되는 시기 내내 과거제 이전에 대한 향수가 존재했던 것은 그 외의 정치 체제를 상상하기 ④ 어려웠던 상황에서, 사적이고 정서적인 관계에서 볼 수 있는 소속감과 충성심을 과거제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봉건적 요소를 도입하여 과거제를 보완하자는 주장은 단순히 복고적인 것이 아니었다. 합리적인 제도가 가져온 역설적 상황을 역사적 경험과 주어진 사상적 자원을 활용하여 보완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이 지문의 마지막 문단으로, (나)의 내용이 대체로 과거제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에 관한 것이었음을 판단할 수 있다. 글을 다 읽었으므로 우선 16번의 답을 찾고, 21번의 5번 선지를 체크하고, 20번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다.

21. 문맥상 ①~⑤의 단어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①: 그가 열쇠를 방 안에 두고 문을 잠가 버렸다. ×
- ② ②: 우리는 그 당시의 행복했던 기억을 되살렸다. ×
- ③ ③: 협곡 사이에 구름다리가 멋지게 걸쳐 있었다. ×
- ④ ④: 사소한 일에만 매달리면 중요한 것을 놓친다. ○
- ⑤ ⑤: 형편이 어려울수록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 ×

5번 선지의 ‘어렵다’라는 표현은 ‘궁하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④의 표현은 ‘불가능하다’, ‘방안이 없다’ 등으로 대체될 수 있을 것이기에 의미가 일치하지 않는다.

SpokesAI

16. (가)와 (나)의 서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 모두 특정 제도가 사회에 미친 영향을 인과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 ② (가)와 (나) 모두 특정 제도를 분석하는 두 가지 이론을 구분하여 소개하고 있다. ×
- ③ (가)는 ((나)와 달리) 구체적 사상가들의 견해를 언급하며 특정 제도에 대한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
- ④ (나)는 ((가)와 달리) 특정 제도에 대한 선호와 비판의 근거들을 비교하면서 특정 제도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
- ⑤ (가)는 특정 제도의 발전을 통시적으로, (나)는 특정 제도에 대한 학자들의 상반된 입장을 공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

(나)에서 과거제의 부작용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을 서술했으므로 1번 선지는 옳다고 할 수 있다.

(나)에서 여러 이론이 언급되기는 했으나 두 가지도 아니었고 구분되어 소개되지도 않았다. 해당 이론들은 공통된 의견(과거제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가진 이론이었다. 따라서 2번 선지와 4번 선지, 5번 선지의 (나)와 관련된 내용 모두 옳지 않다. 또한 사상가들의 견해가 나왔기에 3번 선지의 ‘(나)와 달리’라는 표현 또한 옳지 않다.

따라서 16번의 답은 1번이다.

20. <보기>는 과거제에 대한 조선 시대 선비들의 견해를 재구성한 것이다. (가)와 (나)를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 **갑**: 변변치 못한 집안 출신이라 차별받는 것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과거를 통해 관직을 얻으면서 불만이 많이 해소되어 사회적 갈등이 완화된 것은 바람직하다.
- **을**: 과거제를 통해 조선 사회에 유교적 가치가 광범위하게 자리를 잡아 좋다. 그런데 많은 선비들이 오랜 시간 과거를 준비하느라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펼치지 못한다는 점이 안타깝다.
- **병**: 요즘 과거 시험 준비를 위해 나오는 책들을 보면 시험에 자주 나왔던 내용만 정리되어 있어서 학습의 깊이가 없으니 문제이다. 그래도 과거제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 ① ‘갑’이 과거제로 인해 사회적 유동성이 증가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본 것은, 능력주의에 따른 공정성과 개방성이라는 시험의 성격에 주목한 것이겠군. ○
- ② ‘을’이 과거제로 인해 많은 선비들이 재능을 낭비한다는 점을 부정적으로 본 것은, 치열한 경쟁을 유발하는 시험의 성격에 주목한 것이겠군. ○
- ③ ‘을’이 과거제로 인해 사회의 도덕적 가치 기준에 대한 광범위한 공유가 가능해졌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본 것은, 고전과 유교 경전 위주의 시험 내용에 주목한 것이겠군. ○
- ④ ‘병’이 과거제로 인해 심화된 공부를 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정적으로 본 것은, 형식적인 학습을 유발한 시험 방식에 주목한 것이겠군. ○
- ⑤ ‘병’이 과거제로 인해 교육에 대한 동기가 강화되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본 것은, 실무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시험 방식에 주목한 것이겠군. ×

※ 해당 보기 문제의 선지는 각 문장의 앞부분에서 <보기>와의 내용 일치를, 뒷부분에서 본문과의 내용 일치를 판단하는 형식이며 많은 <보기> 문제가 이러한 형태이므로 참고하면 좋다.

※ 보기 문제의 경우, 보기의 내용을 숙지하며 각 선지를 보고 다시 본문으로 되돌아가 키워드 중심으로 본문의 내용과 선지의 내용을 대조해 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문단별로 끊어 읽으며 문제를 풀다 보면 숙련도가 올라갈수록 자연스레(정확히 몇 문단인지는 모르더라도), 본문의 어느 위치 쯤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에 대해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므로 꾸준한 연습을 통해 보기 문제를 완벽하게 풀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유동성’이라는 단어는 2문단에서 등장한다. 많은 사람에게 사회적 지위를 얻을 기회를 준다는 언급과 함께 ‘개방성’과 비슷한 의미로 쓰였으며 ‘공정성’을 바탕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1번 선지는 정확히 옳은 선지이다.

7문단에서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많은 인재들이 재능을 낭비한다는 내용이 언급된다. 따라서 2번 선지도 옳다.

3문단에서 고전, 유교 경전이 주가 되는 시험으로 인해 도덕적 가치 기준에 대해 광범위한 공유를 이끌어냈다는 내용이 언급되므로 3번 선지도 옳다.

7문단에 형식적 학습에 대한 언급이 나오므로 4번 선지도 옳다.

7문단에서 실무 능력에 대해 평가할 수 없다는 내용이 언급되므로, ‘실무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시험 방식’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다.